•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 1 | 1 | 2 | 2 | 3 | 5 | 4 | 1 | 5 | 4 |
|----|---|----|---|----|---|----|---|----|---|
| 6 | 1 | 7 | 3 | 8 | 5 | 9 | 4 | 10 | 2 |
| 11 | 5 | 12 | 3 | 13 | 4 | 14 | 4 | 15 | 3 |
| 16 | 3 | 17 | 2 | 18 | 5 | 19 | 5 | 20 | 3 |

1. [출제의도] 윤리학의 구분 파악하기

갑은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정립하여 도덕 판단의 근 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려는 이론 규범 윤리 학의 입장을 지닌다. 을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 과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분석을 강조하는 메타 윤 리학의 입장을 지닌다.

2. [출제의도] 죽음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자각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죽음에 대한 참된 인식을 통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윤리적 소비 이해하기

칼럼은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에 따라 자신만을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촉구하며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등 공동체를 생각하는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출제의도] 과학자의 책임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갑은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미칠 사회적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자가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사회에 알리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외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을은 과학자가 과학적 지식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자가 과학적 지식을 검증할 때 주관적 가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5.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칸트와 베카리아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므로,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한편 칸트와 베카리아는 모두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엘리아데의 종교관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이 세계 안에서 스스로 현현(顯現)하여 이 세계를 성화(聖化)시키는 절대적 실재가 있다는 사 실을 믿는다고 보았다. 반면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적 실재를 거절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 하고 있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제시문은 이민자 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는 다 문화 정책을 시행하면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이 제 고되어 민주적 연대가 촉진될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 서 다문화 정책은 이민자 집단의 전통적 삶의 방식 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 이라고 본다.

8. [출제의도] 친구 관계의 윤리 이해하기

가상 편지에서는 선행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 친구 간의 도리이며, 인격을 수양하여 덕 있는 사람이 되 어야 덕 있는 사람과 벗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 신의 나이나 지위, 가문 등 외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 고 벗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친구 관계에서는 자 신의 덕을 함양하여 상호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9. [출제의도]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중진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았으며,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았으며,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평등하게 조정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10. [출제의도] 정보 격차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갑, 을은 모두 정보 사회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갑은 정보 통신 기술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므로 정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을은 정보 통신 기술이 또 다른 정보 격차를 야기할 것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본다.

11. [출제의도] 배려 윤리 이해하기

가상 대담의 선생님은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정의, 이성, 보편 법칙에 대한 의무 등을 강조하는 남성 중 심적 정의 윤리를 비판하고, 여성의 도덕적 지향인 공감, 유대감, 정서적 돌봄 등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 를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소로와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시민 불복종을 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부정의한 법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을 근거로 행해지는 부정의한 법에 대한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위법 행위라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전쟁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의 '나'는 왈처이다. 왈처는 정의 전쟁론을 주장하며, 전쟁의 개시와 수행 과정 및 전후 처리가 정의롭다면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제시문의 '어떤 사람들'은 전쟁은 자국의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쟁에서는 도덕적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왈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전쟁은 도덕적 조건을 준수하며 제한된형태로 수행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14. [출제의도] 예술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음악이 도덕적 사회의 실현과 올바른 품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도덕주의의 입장을 지닌다. 반면 을은 음악이 미적 가치 그 자체만을 추구해야하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미주의의 입장을 지닌다.

15. [출제의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레오폴드, 병은 성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동식물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대지 윤리를 주장하였으며, 인간이 동식물을 삶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근거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직업에 대한 칼뱅과 마르크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칼뱅, 을은 마르크스이다. 칼뱅은 인간의 구원이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과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이라는 직업 소명설을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매뉴팩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장안의 분업이 노동 소외를 심화시켜 노동자의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보면서,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집단의 도 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 았다. 또한 집단 속에서 이기적으로 되어 가는 인간 의 성향과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부정 의가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대한 노직과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개인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롤스는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한편 노직과 롤스는 모두 분배의 공정함은 결과보다는 절차의 공정함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칸트의 의무론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칸트는 A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